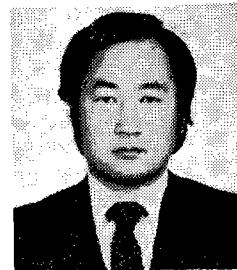


## ■ QC 강좌 ⑥／산점도란 ②

### 산점도란?



金 源 炳

〈韓國工業標準協會 品質管理專門委員〉

#### (3) $x$ 의 변화와 $y$ 의 변화

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  $x$ 와  $y$ 가 직선관계에 있을 때  $x$ 의 작은 변화로  $y$ 가 크게 변화하는 경우와  $x$ 가 상당히 변화해도  $y$ 가 그다지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.

그림 1 (가)는 점의 경사도가 크며 (나)는 점의 경사도가 작은 경우이며 이렇게 늘어선 점의 경사도의 크기로  $x$ 의 변화가  $y$ 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알 수 있다.

#### (4) $x$ 의 값에 $y$ 의 散布의 크기

앞에서와 같이 두 가지 데이터  $x$ 와  $y$ 에 직선 관계로는 그림 2에서 보면  $x$ 가 어떤 값으로 있을 때  $y$ 는 일정한 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포를 하고 있다. 그림 2 (가)는 어떤  $x$ 의 값에 대해  $y$ 는 산포하고 있지 않으나 (나)

는 같은  $x$ 의 값에 대해  $y$ 는 큰 산포를 하고 있다.  $x$ 가 같은 측정치인데  $y$ 가 여러가지로 값을 갖는 것은  $x$ 이 외에  $y$ 에게 다른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.

#### (5) 층별의 필요성은 없는가?

아래 그림 3의 산점도에서는 타점된 점이 왼쪽 아래의 무더기와 오른쪽 위의 무더기로 갈라지고 있다. 2개의 그룹을 층별하여 각각 보면  $x$ 와  $y$ 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. 이를 전체로서 보면  $x$ 가 크면  $y$ 도 커져서 플러스의 상관이 있다. 떨어져 있는 2개의 그룹 사이에 점이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으로는 어떻게 판단해야 좋을지?

이럴 때는 2개 그룹의 데이터의 이력을 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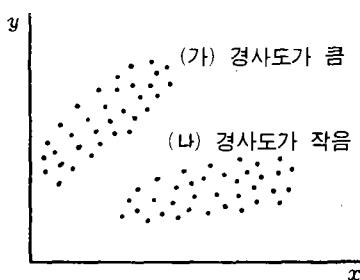


그림 1. 경사도의 크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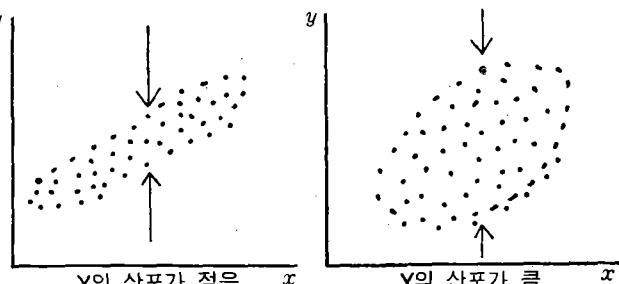


그림 2.  $x$ 에 있어서  $y$ 의 산포크기

사하여 원료, 기계, 계절, 시간 등으로 충별 했을 때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여부를 확인해 보면 된다.

#### (6) 직선관계냐? 곡선관계냐?

아래 그림 4에서는  $x$ 와  $y$ 가 직선관계에 있는 경우와 곡선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 예이다.  $x$ 가  $a$ 의 근처에 있을 때  $y$ 가 가장 커지고 있다.  $x$ 가  $a$ 보다 작은 곳에서는  $x$ 가 커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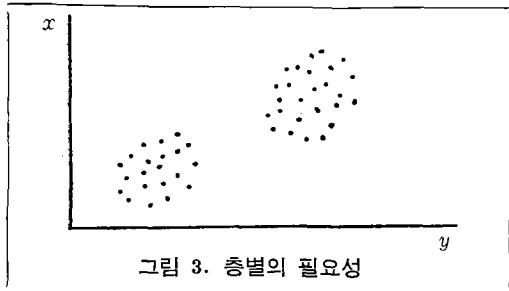


그림 3. 충별의 필요성

면  $y$ 가 커지나  $x$ 가  $a$ 보다 큰 곳에서는  $x$ 가 커지면 반대로  $y$ 는 작아진다.

따라서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 $x$ 의 값이  $a$ 이하 밖에 없는 경우와  $a$ 이상 밖에 없는 경우에는  $x$ 와  $y$ 의 상관관계가 완전히 반대로 되는 일도 있다.

#### (7) 데이터 범위 안에서 결론을 낼 것

가령 같은 공정에서 다른 회사의 사례를 보면 불량률과 온도와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자기 회사의 불량률에 대해서는 온도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가 아니면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.

#### (8) 데이터의 수가 적을 때의 취급

산점도를 작성하여 2가지 종류의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살피고자 할 때 데이터의 수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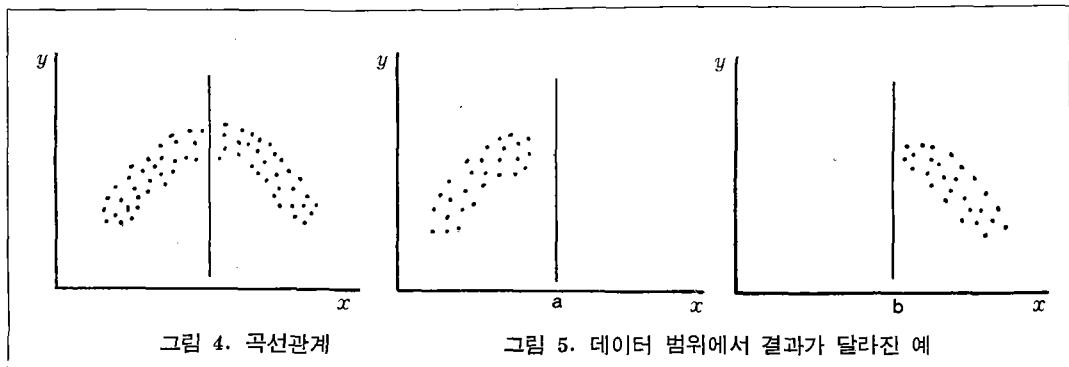


그림 4. 곡선관계

그림 5. 데이터 범위에서 결과가 달라진 예

많은 것이 바람직하다. 그러나 데이터의 수가 적더라도 그 사실을 고려하면서 검토하면 그런대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. 데이터에 수가 3~4개는 너무 적으나 10개 정도 밖에 없는 경우라도 산점도를 만들면 무엇이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일이 많으므로 산점도의 작성은 권하고 싶다.

#### (9) 거짓 상관에 주의

$x$ 와  $y$ 의 사이에 실제로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데이터상으로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.

이를 거짓상관이라고 한다. 예를 들면 마신 물의 양과 취기가 데이터상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한다. 이 경우의 물이란 물론 보

통 마시는 수도물이 아니다. 마신 알콜의 양과 취기와는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데이터로서는 알콜과 동시에 마신 물의 양을 잡으면 이러한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.

알콜을 마시면 취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러한 해석을 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.

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데이터에 의해 알아보기 마련이므로 거짓 상관 때문에 갈팡질팡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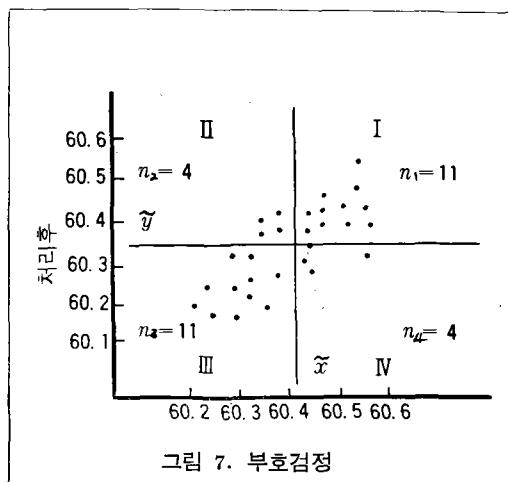
### 4. 상관유무를 알아보는 방법

2종류의 데이터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

의 여부를 통계적으로 알아 보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. 여기서는 거의 계산을 하는 일이 없이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는 부호검정표(符號檢定法)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. 예는 어떤 약품 크기에 대해 처리 후의 입자의 크기 데이터를 가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.

순서 1 : 산점도를 만든다.

순서 2 : 그림 7과 같이 점을 좌우로 반씩 나누는 세로의 선(메디안선  $\tilde{x}$ )과 상하를 반으로 나누는 가로의 선(메디안선  $\tilde{y}$ )를 긋는다.



순서 3 : 2개의 메디안선으로 나누어진 4개의 구획 I, II, III, IV에 있는 점의 수  $n_1, n_2, n_3, n_4$ 를 센다(메디안 선상에 오른 점이 있을 때에는 이 점은 수 속에 넣지 않고 제외한다)

순서 4 :  $n_1 + n_3 = n_+$ ,  $n_2 + n_4 = n_-$ 라 하고  $n_+$ 와  $n_-$ 의 값을 구한다. 그림 7에서는

$$n_+ = n_1 + n_3 = 11 + 11 = 22$$

$$n_- = n_2 + n_4 = 4 + 4 = 8$$

순서 5 :  $n_+$ 와  $n_-$ 의 작은 쪽의 값과 부호검정표의 값을 비교하여 표의 값과 같거나 그것보다 작으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. 아래표에 있어  $k$ 는  $k = n_+ + n_-$ 로 된다. 이 예에서는  $k = 30$ 이다.  $\alpha$ 는 0.01 및 0.05의 값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를 위험률(危險率) 또는 유의수준(有意水準)이라고 부른다.

이 경우  $k = 30$ ,  $\alpha = 0.05$ 의 표의 값은 9이

다.  $n_-$ 는 8로 9보다 작으므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. 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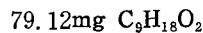
#### <76面에서 계속>

및 연료준용액 1mL에 알코올을 가하여 50mL로 하고 황화나트륨시액 2방울을 가한 액의 색보다 짙어서는 아니 된다.

(6) 증류시액 : 이 품목은 비점 및 유분의 측정법 제 1법에 따라 유분을 측정할 때 185~193°에서 95v/v% 이상을 유출하여야 한다.

정량법 : 이 품목 0.8g을 정밀히 달아 카르보시험법 중의 에스텔가 및 에스텔함량 측정법에 따라 정량한다.

0.5N 알코올제수산화칼륨용액 1mL =



용도 및 사용법 : 사과, 나무딸기(raspberry), 살구(apricot), 카렌트(currant), 포도, 복숭아 등의 과실향미료 및 부란디, 리큐르(liqueur) 등의 양주향미료로 쓰이고 기타 화향형의 향장품향료에도 쓰인다. 보통 코냑油로 명명되어 시판되는 것은 야자유에서 얻어지는 여러가지의 고급지방산에스텔의 혼합물이다.

식품에 대한 사용량(ppm)

음료 : 6.8. 아이스크림 : 7.5. 켄디 : 17. 베이커리식품 : 24.

젤라틴, 푸딩 : 350,

0.06. 츄잉껌 : 340. 리큐르 : 20, 8.5.

외국규격기준 : 일본에서는 1962년 에스텔류에서 분리하여 단일품목으로 지정하고 규격을 정하였다.

정직하고 깨끗하며 창조적인 직장풍토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직장인상을 정립합시다.

- 부정·비리추방 및 사고예방 활동 강화
- 의식개혁운동의 활성화로 직장윤리 확립
- 상거래질서 확립운동의 심화, 발전